



미 증시, 부채한도 협상 진전 기대감 등으로 반등에 성공

미국 증시 리뷰 및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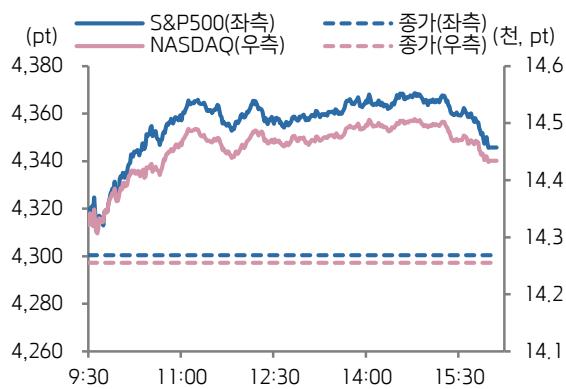
5 일(화) 미국 3 대 증시는 전거래일 급락세에 대한 기술적 매수세 유입 속 9 월 ISM 서비스업 호조, 미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 일부 진전 소식 등에 힘입어 금융 및 성장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에 성공(다우 +0.9%, S&P500 +1.1%, 나스닥 +1.23%). 업종별로는 금융(+1.8%), 커뮤니케이션(+1.6%), 기술(+1.5%) 등이 강세, 부동산(-0.9%), 유트리티(-0.2%) 업종만 약세.

9 월 ISM 서비스업 PMI 는 61.9 로 전월(61.7) 및 예상치(60.0)를 모두 상회. 세부항목 상으로 기업활동(60.1→62.3), 신규주문(63.2→63.5), 가격(75.4→77.5) 등이 주요 항목들이 개선된 반면, 공급업체 배송지수(69.6→68.8)는 소폭 하락. ISM 측은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으나, 물류, 원자재 관련 어려움이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

옐런 재무장관은 향후 2 주 이내에 미국 의회에서 부채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이라고 재차 경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공급난이 일시적이겠으나, 향후 수개월 내에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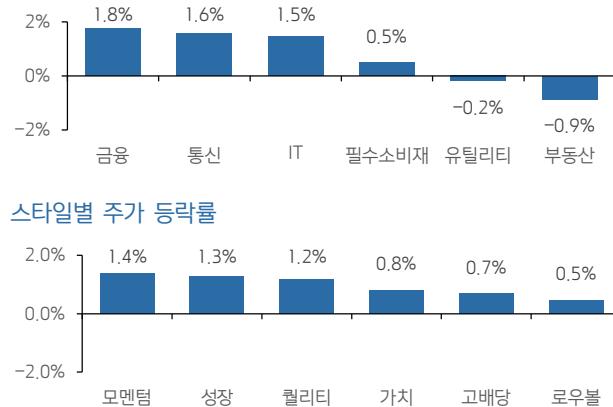
주요 외신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위원들과 회의에서 3.5 조달러 사회복지예산안의 규모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1.9~2.2 조달러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이로 인해 그동안 예산규모를 놓고 반대입장을 취해왔던 공화당과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금융시장의 위험선호심리 개선에 기여.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 | | | | |
|-------------|-----------|--------|-----------|----------|--------|
| 주식시장 | | | 외환시장 | | |
| 지수 | 가격 | 변화 | 지수 | 가격 | 변화 |
| S&P500 | 4,345.72 | +1.05% | USD/KRW | 1,188.80 | +0.56% |
| NASDAQ | 14,433.83 | +1.25% | 달러 지수 | 93.98 | +0.22% |
| 다우 | 34,314.67 | +0.92% | EUR/USD | 1.16 | +0.01% |
| VIX | 21.30 | -7.23% | USD/CNH | 6.45 | +0.01% |
| 러셀 2000 | 2,228.36 | +0.49% | USD/JPY | 111.47 | +0.01% |
| 필라. 반도체 | 3,227.25 | +1.48% | 채권시장 | | |
| 다우 운송 | 14,461.74 | +1.77% | 국고채 3년 | 1.645 | +1.5bp |
| 유럽, ETFs | | | 국고채 10년 | 2.295 | +4.5bp |
| Eurostoxx50 | 4,065.43 | +1.73% | 미국 국채 2년 | 0.284 | +0.6bp |
| MSCI 전세계 지수 | 710.38 | +0.69% | 미국 국채 10년 | 1.526 | +4.7bp |
| MSCI DM 지수 | 3,016.19 | +0.78% | 원자재 시장 | | |
| MSCI EM 지수 | 1,236.51 | +0.01% | WTI | 78.93 | +1.69% |
| MSCI 한국 ETF | 78.89 | -0.59% | 금 | 1760.9 | -0.38%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9%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71%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8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7.8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낙폭과대 인식성 기술적 및 저점 매수세 유입 가능성
2. 특정 개별중소형주들의 반대매매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 변동성 확대 여부
3. 미국 금융주 강세에 따른 국내 은행 등 금융주들로의 훈풍 효과 작용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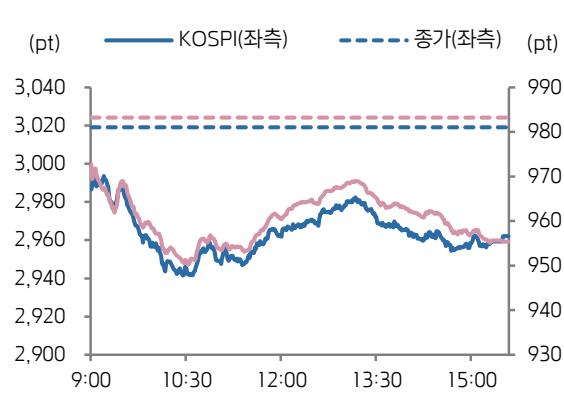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최근까지 좀처럼 타협점을 찾아가지 못했던 미 정치권의 부채한도 협상은 바이든의 3.5 조달러 예산안 축소(1.9 조~2.2 조달러) 제의 소식으로 타협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 다만, 아직까지는 공화당 측에서 별 다른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옐런 재무장관이 전거래일에도 경고를 했던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은 10 월 18 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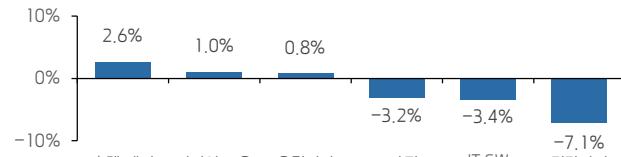
물론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 10 월 18 일 내 부채한도 협상 실패 후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디폴트에 불과할 뿐, 기축통화이자 자국통화인 달러화로 발행하는 미국 국채에 대해 원금이나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채권자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시장이 최근 들어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3 분기 실적시즌에 대한 경계심리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추세적 인플레이션 급등 불안 이외에도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단기적인 불확실성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 결국 현재의 시장 불안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문제(부채한도 협상)부터 풀어나갈 필요가 있으며, 3 분기 실적시즌, 고 인플레이션 문제는 이보다 시간을 두고서 시장이 소화해내가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음.

전거래일 3,000 선을 하회하며 7 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던 코스피는 미 정치권의 교착상태 완화 속 미국 증시 강세 효과에 힘입어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전거래일 정유 및 리오프닝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 내 주력 종목들이 동반 급락세를 보인 만큼, 금일 이들 업종 및 종목을 중심으로 기술적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 다만, 연초 이후 몇차례 있었던 단기 급락장의 패턴 상으로 추정해봤을 때, 장전 동시호가 및 장초반 반대매매 물량 출회로 인해 일부 개별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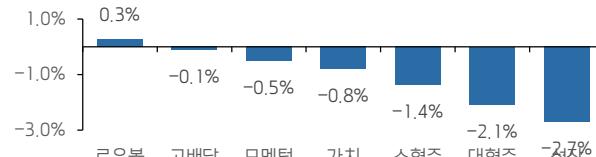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